

# 민속품과 미술품 사이에서 뮌헨 오대륙박물관과 노르베르트 베버의 1926년 기증품

이화진

## I. 머리말

李和眞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박사  
19세기 미술사

1868년 뮌헨에서는 바이에른을 통치하는 비텔스바흐(Wittelsbach) 가문의 쿤스트캄머를 기반으로 한 왕립민족학컬렉션(Königlich ethnographische Sammlung)이 시민을 위해 문을 열었다. 이곳은 1917년부터 민족학박물관(Museum für Völkerkunde), 2014년 가을부터는 오대륙박물관(Museum Fünf Kontinente)으로 불리며 유럽 이외의 세계 각 지역에서 온 2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게 되었다.<sup>1</sup> 특히 3대 관장 루치안 셰르만(Lucian Scherman)의 부임과 함께 민족학박물관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2020S1A5B5A01040753). 본 논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 뮌헨 오대륙박물관의 부관장이자 동아시아 미술품 책임 관리자인 브루노 리히츠펠트(Bruno Richtsfeld) 박사, 문서 및 사진 자료실의 안카 크레머 데 후에르타(Anka Krämer de Huerta) 박사, 도서관 책임자 마르틴 그로스(Martin Gross), 장크트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장 테오펠 가우스(Theophil Gaus) 신부와 다비트 간트너(David Gantner) 수사와의 만남이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분들의 호의와 협력에 감사드린다. 본 논문의 모든 사진 자료는 뮌헨 오대륙박물관의 허가를 얻어 2021년 여름 필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 필자의 최근 논저: 「G.E. 레싱(G.E. Lessing)의 『라오콘』과 회화의 시공간」, 『인문과학연구논총』 42:2, 2021; 「요한 크리스티안 클라우센 달의 구름 그리기와 기상학」,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53, 2020.

1 Michaela Appel, *Netzwerk Exotik. 150 Jahre Völkerkundemuseum München* (München: Staatliches Museum für Völkerkunde, 2012), p.9; Claudius Müller, "Völkerkunde und Kunst in München," In

은 오랜 잠(Dornröschenschlaf)에서 깨어나 국제적인 기관으로 성장했다는 칭송을 받는다.<sup>2</sup> 1864년 프로이센 영토이던 포젠(Posen)에서 출생한 세르만은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한 인도학자로서 1907년 민족학컬렉션의 관리자로 임명되었다. 그가 선출된 이유 중 하나로 소장품의 특징을 꼽을 수 있는데, 아시아 및 남태평양에서 온 물품이 컬렉션의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세르만은 1893년부터 잡지 『동방 문헌 *Orientalische Bibliographie*』의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뛰어난 조직력을 검증받았으며, 민족학과 고고학 전문성을 갖춘 이상적 인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1916년 8월 세르만이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민족학을 담당하는 정교수(Ordinarius)로 임명되면서 대학 교육과 민족학박물관의 연계가 이루어졌다.<sup>4</sup>

세르만과 함께 민족학박물관의 소장품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점에서 뮌헨과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장크트오티리엔의 선교 베네딕도회와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14년 총아바스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는 아프리카 조각을 박물관에 기증한 이후 1916년, 1919년, 1932년에도 기증품을 전달했다.<sup>5</sup> 더

---

*Weiter als Horizont*, hg. Müller, Claudius (München: Hirmer, 2008), p.8; <https://www.museum-fuenf-kontinente.de/museum/geschichte-des-museums.html> (2021. 12. 15. 검색) 뮌헨에서 독립된 민족학박물관을 세우려는 선구적 움직임은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본에 체류한 적이 있는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가 1835년 4월 21일 바이에른 왕 루트비히 1세(Ludwig I)에게 민족학박물관 설립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1862년 4월 23일 막시밀리안 2세(Maximilian II)가 모리츠 바그너(Moritz Wagner)를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가시화되었고, 독일 최초의 민족학박물관으로 이어졌다.

2 Sigrid Gareis, *Exotik in München* (München: Anacon, 1990), pp.89-90.

3 Wolfgang J. Smolka, "Lucian Scherman-Stationen seines Wirkens in München," *Münchener Beiträge zur Völkerkunde*, 6 (2000), pp.9-10; Gareis, 위의 책, p.117. 세르만은 현재 폴란드의 포즈난(Poznań)에서 태어나 1883년 뮌헨으로 이주했고 1885년 스물한 살도 채 안 된 젊은 나이에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892년 인도 환상문학을 주제로 교수자격논문을 쓴 세르만은 곧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나치가 권력을 잡은 후 유대인 세르만은 1933년 10월 1일 관장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1939년 4월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6년 매사추세츠주 헨슨에서 사망했다.

4 Uta Weigelt, *Lucian Scherman(1864-1946) und das Münchener Museum für Völkerkunde* (München: Staatliches Museum für Völkerkunde, 2003), pp.60-63; Wolfgang J. Smolka, *Völkerkunde in München* (Berlin: Duncker & Humblot, 1994), p.211.

5 Maria Kecskési, "Lucian Scherman und die Missionsbenediktiner von St. Ottilien," *Münchener Beiträge zur Völkerkunde*, 6 (2000), pp.235-236. 마리아 케치케시(Maria Kecskési)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세르만과 베버의 교류를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오대륙박물관에 남아 있는 1914년 11월 3일 세르만이 베버에게 쓴 편지다. 장크트오티리엔수도원의 문서 보존과 기록을 담당하는 간트너 수사가 필자에게 2021년 2월 16일 보낸 편지에 의하면 1941년 4월 17일 나치의 비밀 국가 경찰, 즉 게슈타포

육이 민족학박물관이 이전하면서 재개관을 준비하던 1926년 초 베버는 한국을 두 번째 방문한 1925년 구매한 작품을 기증했다. 당시 독일에서 민족학과 미술의 관계, 다시 말해 민족학박물관에서 미술품이 전시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커다란 담론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베버의 기증품이 세르만의 민족학박물관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해야만 한다. 뮌헨 민족학박물관의 소장품이 독일 표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청기사파(Blauer Reiter)의 연감에 실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초 서구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의 물품을 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sup>6</sup> 이로 인해 미술사가 점차 민족학의 영역에 몰두하게 되었고 민속품과 미술품의 차이가 공공의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따라서 세르만은 민족학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 시기의 베버가 기증한 품목 또한 당대 미술사와 민족학의 문맥에 연결해서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보고는 뮌헨 민족학박물관의 전통 속에서 세르만이 주도한 전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1926년 기증품 목록을 바탕으로 베버의 수집 작업이 세르만의 정책과 어떻게 맞닿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세르만과 베버의 서신을 비롯해 20세기 초 『뮌헨 미술 연감 *Münchner Jahrbuch der bildenden Kunst*』, 동아시아 미술 전시 관련 도록 등이 주된 참고문헌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수집가이자 한국 문화 전달자로서 베버의 역할과 그의 기증품, 그리고 한국 민속/미술품에 대한 당대 독일인의 시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 II. 오대륙박물관의 기원

### 1. 비텔스바흐 가문과 뮌헨 민족학박물관

16세기 이전 비텔스바흐 가문의 수집 활동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이에른 군주들은 비유럽 지역의 문물을 구매하는 데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막스 1세

---

(Gestapo)가 도착하기 전 많은 문서가 파쇄되면서 개인적인 기록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4월 17일 게슈타포는 수도원 전체와 부속 건물을 몰수해서 독일군을 위한 전쟁 병원으로 사용했고, 거의 1년 동안 수도원을 약탈하고 파괴하며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때 베버의 모든 서신도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오대륙박물관에 남아 있는 베버의 자필 편지가 그의 개인적인 교류를 알려주는 유일한 문헌 자료라고 할 수 있다.

6 Müller, 앞의 글, p.11.

요제프 (Max I. Joseph)의 위임을 받아 1817년부터 1820년까지 아마존 유역을 탐험한 요한 밥티스트 폰 슈픽스(Johann Baptist von Spix)와 카를 프리드리히 필리프 폰 마르티우스(Carl Friedrich Philipp von Martius)의 브라질 컬렉션, 남태평양 지역을 여행한 제임스 쿡(James Cook)의 수집품, 프랑스인 크리스토프 오귀스탱 라마르픽코(Christophe-Augustin Lamare-Picquot)의 인도 민속품, 루트비히 2세(Ludwig II)가 사들인 지볼트의 일본 컬렉션, 오노라토 마르투치(Onorato Martucci)의 중국 작품 등이 소장품의 중요한 토대를 형성했다.<sup>7</sup> 또한 20세기에 이르러 테레제 공주(Prinzessin Therese)는 1888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아메리카 대륙 탐험을 통해 수집한 2천여 점의 아메리카 인디언 민속품을 기증했으며, 1896년부터 1903년까지 근동 지역과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왕세자 루프레히트(Kronprinz Rupprecht)가 가져 온 자바 단검, 중국 청동 거울 등을 박물관이 구매했다.<sup>8</sup> 세르만도 1910년 10월부터 1911/1912년까지 부인 크리스티네(Christine)와 함께 실론(Ceylon), 즉 스리랑카와 오늘날 미얀마로 불리는 버마(Birma) 그리고 영국령 인도를 여행하며 수많은 작품을 구입했는데, 이 또한 민족학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이 되었다.<sup>9</sup>

무엇보다 세르만이 어려운 국가 재정에 직면하여 소장품 확대를 위해 사용한 전략은 박물관 사이의 작품 교환이나 후원 및 기증에 대해 정부가 훈장과 칭호, 직책을 수여하는 방식이었다.<sup>10</sup> 이는 세르만이 1921년 11월 23일 한국에 있는 테오도어 브레허(Theodor Breher) 신부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sup>11</sup> 그는 민족학박물관의 한국 컬렉션을 보충하고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온전히

7 Appel, 앞의 책, p.18.

8 Claudius C. Müller, "400 Jahre Sammeln und Reisen der Wittelsbacher," In *Wittelsbach und Bayern*, hg. Müller, Claudius C. (München: Hirmer, 1980), pp.28-30.

9 Smolka, 앞의 글, p.18; Claudius Müller, "Lucian Scherman und der *Blaue Reiter*," In *Der große Widerspruch*, hg. Klingsöhr-Leroy, Cathrin (Berlin: Deutscher Kunstverlag, 2009), p.105.

10 Weigelt, 앞의 책, pp.103-107; Smolka, 위의 글, pp.17-18. 개인 수집가나 기증자의 사회적 명예를 상승시키는 보상 방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던 것으로, 후원금의 규모, 기증품의 수준, 수집가의 명성 등을 고려한 뒤 정부가 등급을 결정했다. 때때로 기증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의 의견이 항상 충족되지는 않았어도 '거래'는 이루어졌다. 뉘른베르크의 제조업자 벤글라인(Wenglein)의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바이에른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르만의 방법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임기를 시작한 1907년부터 1916년까지 민족학박물관의 소장품이 2만 7천 점이나 늘었는데, 전체 소장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엄청난 양이었다. 소장품의 거대한 확장은 세르만이 성공적인 활동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본고가 인용하는 모든 편지는 오대륙박물관의 문서 자료실이 소장한 장크트오틸리엔/베버 서류철에 보존되어 있다.



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므로 1927년 2월 10일 세르만이 선교 베네딕도회 수사이자 한국학자인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에게 민족학 박물관의 한국 컬렉션이 찬란하게 꽃피운 데 있어 베버의 노고에 감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1926년 베버의 기준이 세르만의 소장품 확대 방식에도 부응했음을 알려 준다.

일반적으로 19세기 민족학은 서구 사회를 진보된 문명으로 상정하고 이와 대조되는 원시 민족(Naturvölk)의 물질문화를 가능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다양하게 제시하려고 했다. 따라서 민족학박물관의 전시장은 마치 수장고의 서랍장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쌓아 올린 야생의 작품 더미를 보여주었다.<sup>12</sup> 이처럼 잡동사니가 뒤섞인 듯한 전시장이 점차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던 가운데 미술가들의 관심이 민족학 박물관으로 이어지면서, '베를린 박물관 전쟁(Berliner Museumskrieg)'이라고 불리는 문화정치적 담론이 등장했다. 즉 1905년부터 베를린에 위치한 박물관의 총 책임자(Generaldirektor)이던 미술사가 빌헬름 폰 보데(Wilhelm von Bode)는 박물관관심(Museumsinsel)의 포괄적인 증축 및 컬렉션 개편을 시도했고, 이로부터 민속품에서 미술품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다. 1906년 베를린 민족학박물관의 지붕 아래 동아시아 미술만을 다룬 전시장이 생겨났고, 1924년에는 독립된 동아시아미술관(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이 설립되었다.<sup>13</sup> 베를린 박물관 전쟁은 민족학박물관에서 예술품으로 간주되는 물품의 이탈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뮌헨으로 유입되었을 때 세르만은 베를린과 명백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에게 한 민족의 미술을 평가한다는 것은 전체 문화 산물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민족학박물관에서 미술품을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1909년 『뮌헨 미술 연감』에 실린 그의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뮌헨에는 뉘른베르크와 마찬가지로 공예박물관이 없으므로 우리는 민족학 수집품이 미술공예적 요구도 일부만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맡았이 수행해왔다. ... 이로써 지금까지 바이에른에서는 민족학과 미술을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단

12 Müller, 앞의 글(2009), p.103.

13 Timo Saalman, "Die Neuordnung des Berliner Museums für Völkerkunde in den 1920er Jahren," *Mitteilungen zur Kulturkunde*, 62 (2016), pp.177-178; Müller, 앞의 글(2008), p.9.

계로 전락하지 않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민족학박물관에서 역지로 미술품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문화재인지 단순한 도구인지를 구분하는 혼란스러운 생각, 혹은 그와 유사한 원칙이 생겨날 것이다.<sup>14</sup>

이처럼 세르만은 임기 초부터 민족학박물관에서 미술공예품과 미술품을 수용하고 전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는 1922년 세르만이 쓴 『민족학 박물관 안내서 *Führer durch das Museum für Völkerkunde*』 서문에서도 확인된다.

다른 민족학박물관에 비해 우리 박물관은 미술과 미술공예품에 더 널찍한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 우리는 다른 지역의 미술공예박물관이 맡은 역할을 부족한 환경에서도 최대한 수행하는 중이다. 만일 적합한 공간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결함은 칭송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에른 국립박물관과 민족학박물관이 함께 ... 문화사적인 토대를 무시하는 시선에 빗장을 지르며 미술과 미술공예를 향한 요구를 더욱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여기에서 당시 호프가르텐 아케이드(Hofgartenarkade), 즉 궁전 정원 회랑의 미술관 건물(Galeriegebäude)에 자리한 민족학박물관이 세르만의 의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장소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미 전임 관장 때부터 공간적 협소함과 열악한 전시 여건, 빈약한 재정 등이 민족학박물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세르만의 부임 후에도 바이에른 국회에서 박물관의 낙후된 상태는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마침내 1923년 막시밀리안 거리에 있는 국립박물관(Nationalmuseum) 자리로의 이전이 결정되었다.<sup>16</sup> 당시 독일박물관(Deutsches Museum)이 사용하고 있던 국립박물관은 뮌헨의 중심 대로에 면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넓은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세르만은 새로운 박물관에서 자신의 전시의도를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14 *Münchner Jahrbuch der bildenden Kunst* (이하 *MJK*) (München: Georg D.W.Callwey, 1909), p.85.

15 Lucian Scherman, *Führer durch das Museum für Völkerkunde* (München: R.Oldenbourg, 1922), pp.2-3.

16 Weigelt, 앞의 책, pp.67-68; Smolka, 앞의 책, p.205.



## 2. 세르만의 전시 전략

1926년 7월 10일 막시밀리안 거리로 이전한 민족학박물관<sup>17</sup>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개관 당일에는 38개의 전시실 중 24개가, 그리고 1927년 2월 28일에 4개의 동아시아 전시실, 11월 6일에 4개의 인도 전시실, 1928년 12월 16일에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남태평양 전시실이 마지막으로 개방되었다. 한국 작품은 6-8번 전시장에서 중국과 티베트에서 온 자기, 나전칠기, 목제품과 석제품, 청동 물품, 라마교 제식 용품, 금속 세공품 등과 함께 소개되었다.<sup>17</sup> 그러나 전시된 한국 컬렉션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르만은 상설전(Dauerausstellung) 외에 특별전(Sonderausstellung), 소장품전(Wechselausstellung)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소개했고, 그의 성공적인 전시 활동은 인기를 시작한 이래로 호의적인 언론 평가뿐 아니라 관람 시간과 방문객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sup>18</sup>

무엇보다 세르만은 상설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지리학적인 분할 원칙을 따랐다. 그는 문화란 민족과 지역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여겨서 아프리카 전공자가 아시아 분야를 담당하거나 오세아니아 전공자가 아프리카에 대해 강의하는 것을 거부했다.<sup>19</sup> 1926년 세르만이 베버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 무덤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선교 베네딕도회 수사 마이놀프 퀴스터스(Meinulf Küsters)를 아프리카 지역

17 Weigelt, 앞의 책, pp.87-89.

18 Smolka, 앞의 책, p.191; Gareis, 앞의 책, pp.104-105, 114.

19 Gareis, 앞의 책, p.88; Smolka, 앞의 글, p.20.

담당자로 고용한 것도 지리학적 전문성을 갖춘 학술 조인이 박물관 인력과 전시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20</sup> 말하자면 세르만은 각 지역 전공자의 조력으로 개별 영역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지향했던 것이다.

세르만은 전시의 시각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작품 내부나 뒷면을 볼 수 있게 거울을 사용하고 특정 대상이 강조되도록 집중조명을 활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수평 진열대 대신 수직 진열장을 선호해서 전시 공간을 확대했으며, 부임 초기부터 수장고를 설치해 관람객이 좀 더 쾌적하게 전시장 전체를 둘러보게 만들었다.<sup>21</sup> 세르만의 전시 전략 중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방법은 전시장마다 상이한 색채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민속품 전시에는 중성적이거나 밝은 색채를, 미술품 전시에는 강력한 색채를 사용했다. 혹은 이와 반대로 색채에 변화를 주어 심리적인 긴장과 이완을 야기함으로써 관람자가 지루함을 느낄 새 없이 전시장을 돌아볼 수 있게 유도했다. 이처럼 전시장 배경에 색채를 활용한 것은 미술공예적인 표현 어법으로서 처음으로 뮌헨 민족학박물관에 적용되었으며, 이후 베를린의 동아시아 미술 전시장뿐 아니라 다른 민족학박물관에도 사용되었다.<sup>22</sup> 이는 곧 민속품과 미술품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려는 세르만의 의도가 전시장 구성 전략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 밖에도 세르만은 박물관의 기념비적인 불상이 놓여 있는 일본 전시실 조명을 어둡게 만들어 사찰과 같은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버마의 인형극장실은 실제 공연장처럼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연출했다. 또한 중국, 발리, 자바 등에서 온 그림자 인형은 아마포가 깔린 진열대 아래로부터 조명을 받아 진짜 그림자놀이 같은 효과를 냈다.<sup>23</sup> 이처럼 전시품과 전시 공간의 성격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오대륙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sup>22, 23</sup> 이뿐 아니라 1911년 『뮌헨 미술 연감』에서 세르만이 시도한 새로운 전시 전략을 살펴



2  
뮌헨 오대륙박물관  
불상 전시실  
사진 촬영: 이화진

3  
뮌헨 오대륙박물관  
인형극 전시실  
사진 촬영: 이화진

20 Smolka, 앞의 글, pp.21-22; Kecskési, 앞의 글, p.236.

21 Smolka, 앞의 책, p.190; Gareis, 앞의 책, p.97.

22 Saalman, 앞의 글, pp.186-187; Werner Schmidt, "Das Museum für Völkerkunde in München," *Die Form*, 5 (1930), p.392.

23 Weigelt, 앞의 책, pp.98-99.



볼 수 있는데, 그는 중국 전시실에 12개의 입체경(stereoskop)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실감나게 감상하도록 만들었다.<sup>24</sup> 입체경을 활용했다는 사실은 2021년 여름 오대륙박물관 사진 자료실에서 발견된 한국의 입체경 사진도<sup>4</sup>이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었는가를 유추하게 만든다. 즉 베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국 여행기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이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에 실린 사진은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관람객이 낯선 문화를 전시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각자료가 된 것이다.<sup>25</sup>

세르만은 민족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박물관의 공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연과 토론회를 열었는데, 막시밀리안 거리로 이전한 민족학박물관 1층 회의실 또한 이러한 용도로 활용되었다.<sup>26</sup> 1926년 2월 26일 세르만이 베버에게 보낸 편지는 그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회장을 맡기도 했던 뮌헨 인류학, 민족학, 선사학협회(Münchener Gesellschaft für Anthropologie, Ethnologie und Urgeschichte)와 뮌헨 지리학협회(Münchener geographische Gesellschaft)가 베버

<sup>24</sup> *MJK* (1911), p.143.

<sup>25</sup> 오대륙박물관의 문서에 따르면 1915년 입체경용으로 작업된 베버의 사진 35점이 장크트오틀리엔으로부터 구매되었는데, 2021년 7월 29-30일에 걸쳐 조사한 결과 현재 모두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1판(1915)에 실린 삼도와 동일한 입체경 사진이 18점인 것을 고려할 때, 1911년 베버의 첫 번째 한국 여행을 바탕으로 입체경 사진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sup>26</sup> Weigelt, 앞의 책, pp.69, 115.

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 해 전인 1925년 베버가 한국을 여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강의 내용이 그의 체류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미 세르만은 1919년 2월 14일 베버에게 쓴 편지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한국을 소개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뛰어난 기본서(standard works) 중의 하나”라고 평하며 민족학박물관 도서관에 비치할 뿐 아니라 인류학, 민족학, 선사학협회의 회합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베버의 한국 여행기와 사진 그리고 실제 경험담이 민족학박물관의 전시와 강연에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전문적 학술 연구를 추구했던 세르만이 베버의 도움으로 한국 문화를 가능한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음을 전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오대륙박물관 문서 자료실에는 베버의 강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다.

1926년의 개관과 함께 민족학박물관의 명성이 유럽을 넘어 미국, 아르헨티나까지 퍼지면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세르만에 따르면 1930년 영국에서 열린 박물관학회에서 뮌헨 민족학박물관의 전시 방식은 동시대 유럽에서 “가장 적합한 범례(geeignestes Vorbild)”<sup>27</sup>라고 칭송되었다. 같은 해 잡지 『포름 die Form』에 실린 논평은 세르만의 모범적인 전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뮌헨 민족학박물관은 단순한 일상용품에서부터 수준 높은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두루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학박물관에서 미술 작품을 분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양한 민족학 영역을 미술 작품보다 더 잘 보여주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술 작품과 민속품을 …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 전시실 분할은 대체로 지리학적 관점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나의 전시실 혹은 연계된 전시실은 특정 민족이나 한 문화의 산물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 전시실에는 일상용품, 그 다음 전시실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공예품, 마지막 전시실에는 종교 작품이 놓였다. 이러한 전시품의 상승은 전시장 설비를 통해 지지되었다.<sup>28</sup>

이로부터 세르만의 전시 전략이 미적으로 꾸며진 전시 공간에서 민족학과 미술

27 *Chinesische und japanische Malerei vom 10. bis 18. Jahrhundert* (München: Deukula, 1930), p.5.

28 Schmidt, 앞의 글, pp.387-392.

을 결합하여 문화적 총체성을 전달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세르만은 당시 미술품과 민속품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원시적(primitiv)', '원시 민족', '이국적(exotisch)', '야생(wild)' 등의 차별적인 가치 개념을 쓰지 않았고, 아시아와 같은 고급문화(Hochkultur)의 산물과 원시 도구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았다.<sup>29</sup>

이런 점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확장하며 피지배 민족의 문화유산을 강탈하던 역사적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식민지 지배시기(1885-1914) 동안 베를린 민족학박물관에는 5만 점의 아프리카 민속품이 유입되었다.<sup>30</sup> 뮌헨 민족학박물관에도 1884년부터 1885년까지 카메룬의 독일 대사를 지낸 2대 관장 막스 부흐너(Max Buchner)가 아프리카 민속품을 기증했으며, 몇몇 독일식민협회(Deutscher Kolonialverein) 회원의 동아프리카 컬렉션이나 식민지에서 온 민속품이 박물관에 구매되었다. 그러나 세르만을 비롯한 전임 관장과 박물관 인력은 독일식민협회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 관련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식민협회의 시각으로는 강연회도 개최하지 않았다.<sup>31</sup> 말하자면 독일 식민지에서 온 작품이 있었을 지라도 뮌헨 민족학박물관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세르만에게 비유럽 지역의 산물을 소장한 박물관의 과제는 공공의 예술적 취향을 다양화하고 문화사적 교육 효과를 높이며 미술가와 수공업자를 위한 범례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그가 일반적으로 미술공예박물관에 마련되던 공방 같은 보조 공간을 민족학 박물관에 설치한 것도 미술가와 공예가가 소장품을 철저히 연구하고 따라해 보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sup>32</sup> 더욱이 당시 대다수 방문객이 미술공예학교의 학생과 교사였다는 점은 뮌헨에서 민족학박물관이 식민 지배 사고와 멀리 떨어져 예술적

---

29 Müller, 앞의 글(2009), pp.103-104.

30 Thomas Hinz, "Das Dilemma mit der Exotik. Neuigkeiten aus den Völkerkundemuseen?," *Mitteilungen zur Kulturkunde*, 50 (2004), p.280.

31 Anne Dreesbach und Michael Kamp, "Kolonialismus in München," In *Kolonialismus hierzulande*, hg. Heyden, Ulrich van der und Zeller, Joachim (Erfurt: Sutton, 2007), pp. 68-74. 1882년 독일식민협회(Deutscher Kolonialverein)가 신문 「조국 바이에른 *Bayerisches Vaterland*」에 창립성명서를 실어 달라고 요청하자, 독자 대부분이 식민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절의 답변이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또한 1886년 12월 독일식민협회 지부가 뮌헨에 생겼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고 협회의 연대기 저자가 적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바이에른의 경쟁 상대 프로이센이 식민지 개척의 열망이 가득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32 Gareis, 앞의 책, pp.105-106.

자극과 문화적 결실을 가져오기 위한 작품에 집중했다는 점을 알려준다.<sup>33</sup>

20세기 초 뮌헨 민족학박물관의 컬렉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 하나는 300년 넘게 이어진 비텔스바흐 가문의 미적 취향에 바탕을 둔 수집 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의 정신 아래 인종 차별이나 이데올로기적 편향 없이 문화의 다양함을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성은 식민 정치에 종속된 동시대 민족학 전시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차별화된, 뮌헨만의 독자성이다.<sup>34</sup> 미술과 민속품의 구분에 반대하며 일상용품과 미술공예, 미술품을 아우르려는 세르만의 전시는 문화도시(Kunststadt) 뮌헨의 전통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 III. 노르베르트 베버의 한국 기증품

#### 1. 세르만의 서신과 베버의 수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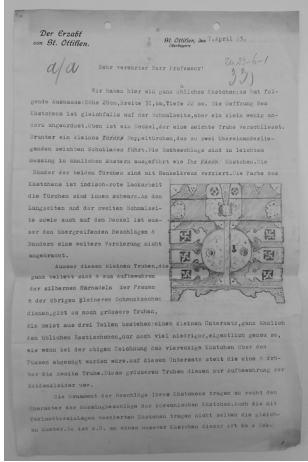
1923년 12월 12일 세르만은 베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 컬렉션에 필요한 작품 목록을 첨부한다며, 그가 직접 박물관을 방문해서 목록 작성에 참고했던 문헌을 보고 필리핀 컬렉션도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조언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이보다 8개월 전인 1923년 4월 5일 세르만은 어느 한 신사가 서울에서 구매한 낚시장식 목함을 기증받았다며 베버에게 장크트오티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에 유사한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상자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밝혀줄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한 답신<sup>35</sup>으로 1923년 4월 7일 베버는 장크트오티리엔의 여성용 장신구함을 그려가며 크기, 형태, 작업 방식 등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한다. 여기에서 베버가 예로 든 작품은 2019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발간한 『독일 상트 오티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실린 빗집(유물번호 K2157)으로 보인다.<sup>35</sup> 1923년 4월 19일 세르만은 베버의 설명을 언제나 환영하며 그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전함으로써 한

33 Smolka, 앞의 책, p.204.

34 Müller, 앞의 글(2009), p.102.

3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독일 상트 오티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교양: 가을기획, 2019), pp.104, 365. 이 보고서는 빗집의 입수 시기를 1925년, 즉 베버의 두 번째 한국 여행 시기로 표기하고 있는데, 오대륙박물관에 보관된 1923년의 편지를 고려할 때 빗집은 더 이른 시기에 이미 장크트오티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에 소장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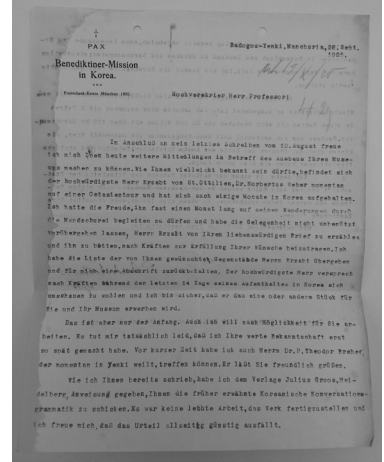


5  
 <1923년 4월 7일  
 장크트오티리엔에서 베버가  
 세르만에게 보낸 편지>  
 뮌헨 오대륙박물관  
 사진 촬영: 이화진



6  
 <1925년 7월 9일  
 서울에서 베버가  
 세르만에게 보낸 엽서>  
 뮌헨 오대륙박물관  
 사진 촬영: 이화진

7  
 <1925년 9월 28일  
 만주 연길에서 에카르트가  
 세르만에게 보낸 편지>  
 뮌헨 오대륙박물관  
 사진 촬영: 이화진



국 지역전문가가 필요한 세르만에게 베버가 학술적 조인자로 여겨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7월 9일 서울에서 베버는 세르만에게 엽서<sup>6</sup>를 보내며 “한국에서 벌써 박물관을 위해 작은 물품을 샀다”고 알리는데, 4일 뒤인 7월 13일 세르만이 에카르트에게 쓴 편지는 그가 단순한 일상용품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전달하는 미술 공예품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말하자면 한국의 전형적인 특성이 강조되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중국 소재와 차별화 되는 작품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품 단지 같은 무덤 부장품이나 청동 작품 같은 것 말입니다. 또는 (장크트오티리엔에는 있지만 우리 박물관에는 없는) 화려하게 상감된 껌치럼 더 이후의 기법이 적용된 작품, 한국의 제사 용품, 한국 불교문화의 특수성이 반영된 작품 등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지금 훨씬 더 넓은 공간, 막시밀리안 거리에 있는 이전의 국립박물관으로 옮겨갈 준비를 시작했기에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세르만은 민족학박물관에 없는 한국 물품과 소장하고 있는 한국 컬렉션 목록을 에카르트에게 보냈는데, 1925년 9월 28일 에카르트가 연길에서 쓴 답장<sup>7</sup>은 그와 베버가 민족학박물관의 개관을 위해 작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아마도 알고 계신 것처럼, 존경하는 장크트오틀리엔의 총아빠스 노르베르투스 베버 박사가 동아시아 여행길에 몇 달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박사의 만주 여행 일정에 동참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 총아빠스께 교수님의 애정 가득한 편지 내용을 전하며 교수님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데 힘을 보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물품 목록을 총아빠스께 건넸고 한 부는 베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아빠스께서는 한국에 머무르는 마지막 14일 동안 힘닿는 대로 구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아빠스께서 교수님과 박물관을 위해 한두 작품 구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 한국 미술사를 저술하고 있던 에카르트는 누구보다도 세르만의 의도를 잘 이해했을 것이며, 베버 또한 에카르트와 함께 여행하는 동안 미술사 지식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베버는 두 번째 한국 방문 후 출판한 『한국의 금강산에서 *In den Diamantbergen Koreas*』에서 일본 화가의 풍경을 인상과 비교했는데,<sup>36</sup> 이러한 관점은 1909년 뮌헨에서 열린 전시 《일본과 동아시아 미술 *Japan und Ostasien in der Kunst*》의 도록에 베를린 동아시아미술품 책임자이자 미술사가인 오토 쿼멜(Otto Kümmel)이 송나라 회화를 ‘인상’으로 평가한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sup>37</sup> 베버가 쿼멜의 글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상과 인상주의, 동양 산수화의 특징을 언급하는 베버는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미술사 식견과 수준 높은 미적 감각을 갖추었다고 여겨진다.

1926년 2월 12일 세르만은 베버에게 상자 다섯 개가 전날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다음과 같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물품을 모두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작품이 미술공예적으로 매우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을 위해 애써주신 당신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혹시 일상용품도 수집했는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등 질문을 해대며 성가시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박물관에 오셔서 제게 보내준 작품을 보며 직접 설명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그 사이 박물관에서는 두 점씩

36 노르베르트 베버, 김영자 옮김, 『수도사와 금강산』(푸른숲, 1999), pp.118-120.

37 *Japan und Ostasien in der Kunst* (München: Verein Ausstellungs-Park, 1909), p.26.

보유한 동일 작품 목록을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로부터 베버의 한국 수집품이 소박한 일상품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그 미술공예적 특징에 세르만이 크게 만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세르만이 민족학 박물관에서 '두 점씩 보유한 동일 작품'의 목록을 준비한 것은 베버의 한국 컬렉션과 박물관 소장품 교환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려주는데, 이는 베버가 세르만에게 한국 물품이 도착했다고 알린 1926년 1월 18일 편지에서 스스로 제안한 것이다. 세르만과 베버의 서신 교환은 뮌헨과 장크트오틀리엔 간의 친밀한 교류뿐 아니라 베버의 수집 활동이 세르만의 민족학박물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혀준다. 1926년 봄 베버의 한국 컬렉션은 민족학박물관에 기증되었고, 소장품 번호 26-52-1번에서 4번까지의 물품은 민족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두 점의 불상(소장품 번호 10.3854와 10.3901)과 맞교환된 것이다.<sup>38</sup>

표1 1926년 총아빠스 베버가 뮌헨 민족학박물관에 보낸 기증품 목록

1/ab	해금과 활	13	백자 연적	25	석제 탁잔
2	가야금	14	청자 잔 받침	26	석제 팔각합
3	태평소	15	청자상감국화문 기사명 접시	27	석제 두꺼비 연적(추정)
4	대나무 담뱃대	16	청자상감국화문 접시	28	석제 인장
5	타날문토기 항아리	17	분청인화문 귀때잔	29	청동 숟가락
6	청자상감모란문 편호	18	분청인화문 귀때잔	30	청동 숟가락
7	청자상감운학문 병	19	갈유 병	31	청동 불기
8/ab	이단투창 고배	20	청자 잔 받침	32	부싷돌 주머니
9	정병	21	청자 잔	33	양금
10	흑유 삼이호	22	청자 접시	40/ab	이층 나전농
11	청자 대접	23	백자 잔	41	천주성교예규 목판
12	청자양각모란문 대접	24	석제 사각합	42	천주성교공과 목판

38 Kecskési, 앞의 글, p.236; You Jae Lee, *Koloniale Zivilgemeinschaft* (Frankfurt am Main: Campus, 2017), p.134. 케치케시가 베버의 한국 기증품을 42점이라고 기술한 이래로 이유재(You Jae Lee) 또한 케치케시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오대륙박물관의 소장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2점에는 한국 외에 필리핀 물품(소장품 번호 26-52-34번부터 39번까지)이 속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증품은 총 36점(a, b로 연결된 작품을 1점으로 계산하고, 맞교환된 4점을 포함했을 때)으로, 2021년 7월 21일과 23일 필자가 리히츠펠트 박사와 확인한 결과 수장고에는 해금의 활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존재했다. 앞으로 베버가 기증한 작품이 모두 한국에서 제작된 것인지 혹은 한국에서 수집한 일본, 중국 작품인지, 또 시기와 용도 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크트오틀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 수장고에는 맞교환된 두 점의 불상이 남아 있는데, 선교박물관장 가우스 신부가 2021년 7월 27일 보내준 사진에 따르면 시암 불상, 즉 금박을 입힌 태국 부처 입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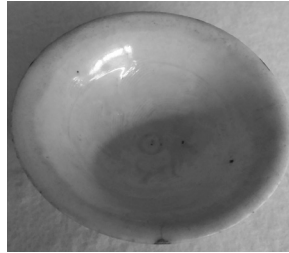
기증품 목록에는 신라와 고려 시대 무덤에서 발굴되었다는 석제 부장품과 청자상감모란문 편호<sup>8</sup>나 백자 잔<sup>9</sup>처럼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의 도자기 품목이 다수를 차지한다. 베버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1911년과 달리 두 번째 여행에서 일본 수집가의 영향을 받아 한국 도자기에 주목했다고 지적되는데,<sup>39</sup> 이와 더불어 고려할 만한 또 다른 가능성은 앞선 편지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족학박물관의 재개관을 앞둔 세르만과의 교류이다. 즉 민족학 박물관에서 미술품을 분리할 수 없으며 민족학의 절정이 예술적 표현에 있다는 세르만의 입장은 베버의 구매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베버의 1926년 기증품이 지닌 미적 가치는 에카르트가 1927년 8월 1일 세르만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도 짚어볼 수 있는데, 그는 세르만이 보내준 소장품 사진 가운데 베버가 기증한 청동 불기<sup>10</sup>를 그의 『한국 미술사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에 도판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살과 아라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새겨진 이 청동 단지는 1929년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된 『한국 미술사』의 도판 452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무엇보다 한국과 베버의 수집 활동에 대한 당시 독일인의 평가는 세르만의 1927년 10월 31일 편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뮌헨대학 신학과는 1924년 2월 장크트오티리엔의 총아빠스 베버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소. 이처럼 존경을 표할 수 있게 되어 한없이 기뻐다오. 박물관이 그를 ... 친구이자 후원자로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오. ... 또한 그가 동



8  
〈청자상감모란문 편호〉  
14세기  
27×20×18.5cm  
뮌헨 오대륙박물관  
사진 촬영: 이화진



9  
〈백자 잔〉  
연도 미상  
높이 4cm  
지름 10.8cm  
뮌헨 오대륙박물관  
사진 촬영: 이화진



10  
〈청동 불기〉  
12/13세기경  
높이 12.7cm  
지름 34.8cm  
뮌헨 오대륙박물관  
사진 촬영: 이화진

39 이주현, 「독일인이 본 근대 한국-독일 민속박물관의 한국유물 수장양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2011), p.318.

40 Andreas Eckardt,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Leipzig: Hiersemann, 1929), p.CXLV.

아프리카, 한국, 필리핀, 만주, 최근 멀리 아메리카까지 폭넓게 여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오. 그는 이러한 여행을 학술 문헌과 민속품 수집 범주를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고. 그는 선교에 매진하는 한편 자신이 여행한 국가의 문화사적인 측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익숙해지려고 했소. 이런 점에서 한국을 여행하고 쓴 책은 특히 칭송받을 만하오. 첫 번째 책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이미 재판을 찍었고 뒤이어 두 번째 책 『한국의 금강산에서』가 새롭게 출간되었소. … 이들 책에는 훌륭한 삽도가 선별되어 실려 있는데, 이는 베버가 화가이면서 사진가로서도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오. 그는 장크트오티리엔 선교박물관의 확장을 노련하게 이끌었소. 나아가 뮌헨 국립민족학박물관의 한국 전시실을 채운 오래된 자기류 무덤 부장품이 확대되는 데 중심 역할을 했소. 다른 박물관에서는 한국 전시실 자체를 흔히 만날 수 없기에, 우리 박물관은 그에게 감사하고 있소. … 이런 베버 박사에게 … 뷔르츠부르크대학 철학과에서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어떨지, 의향을 물어 보고 싶다오.

이 편지에서 세르만이 베버에게 또 하나의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1926년의 기증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르만이 개인 수집가의 기증에 대해 훈장이나 직책을 수여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의 명예박사학위에 관한 논의가 베버의 조력에 대한 예우였을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세르만의 편지는 20세기 초 독일인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베버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증명한다.

## 2. 한국 인식의 부재

1926년 민족학박물관의 이전과 함께 열린 개관전에 베버의 기증품이 얼마만큼,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전시되었는지 혹은 한국 컬렉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려주는 사료나 도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sup>41</sup> 세르만은 의도적으로 상설전 도록을

41 Ludwig Bachhofer, "Zur Neuauftellung des Museums für Völkerkunde in München," In *Kunst und Handwerk*, 76:6 (1926), pp.153-159; Scherman, 앞의 책, pp.6-8. 1926년 개관을 다룬 루트비히 바흐호퍼(Ludwig Bachhofer)의 전시평에는 한국과 관련된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출판하지 않았는데, 그 대신 전시 요약문이나 작품 옆의 설명문, 짧은 해설이 담긴 커다란 슬라이드를 통해 관람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었다. 이는 세르만이 관람객의 방문과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기증과 구매에 따른 신 소장품전이나 특정 지역에 관한 대여전, 특별전을 통해 전시를 자주 바꾸고 전시장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도록 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sup>42</sup> 20세기 초 민족학박물관의 한국 소장품을 다룬 신문이나 잡지 기사도 전무한데, 1909년 열린 《일본과 동아시아 미술》에 대한 전시평에서 한국에 관한 짙막한 논평을 찾을 수 있다.

불교의 유입과 함께 중국에서 풍요롭고 강한 예술 활동이 시작되어 한국을 넘어 일본으로 퍼졌으며, 바로 그곳에서 높은 예술적 재능을 지닌 민족에게 이제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미적인 힘이 일깨워졌다. ... 특히 자기는 중국 및 히데요시의 군사 가 정벌에서 데려온 한국 도공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자극을 받았다.<sup>43</sup>

여기에서 당시 독일인에게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연계 지점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본 도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임진왜란과 한국 도공의 이주가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11년 『뮌헨 미술 연감』에서 민족학박물관이 기증품으로 받은 일본 그릇을 소개하며 ‘매우 드문 사쓰마 도기로 일본 도자에서 한국 고유의 영역’, ‘한국 양식 코히키’, ‘히데요시 이전인 13, 14세기 작품’이라고 지칭한 것에서도 나타난다.<sup>44</sup> 1912년 연감에도 명망 있는 일본 가족이 다도에 사용한 화려하고 금을 입힌 16세기 한국 접시가 기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5</sup> 그러나 1930년대 초 연감까지 한국 기증품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당시 베버의 기증품에 속한 한국 도자기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

1922년 웨어만이 출판한 『민족학박물관 안내서 *Führer durch das Museum für Völkerkunde*』는 한국 물품이 이슬람, 인도 아대륙, 인도차이나 반도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던 5번 전시실이 박물관의 중심(Mittelpunkt)이자 흥미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장소라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전시장 오른쪽 벽면 진열장 31-32번, 그리고 왼쪽 벽면 진열장 1번에 한국 작품이 있다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단지 ‘창문 옆 기둥 가에 귀신을 쫓아내는 얼굴을 한 한국식 길표지가 있다’라는 묘사가 있을 뿐으로, 아마도 마을 어귀에 세우던 장승을 말하는 듯하다.

42 Weigelt, 앞의 책, p.96; Gareis, 앞의 책, p.114.

43 C. Graf-Pfaff, “Zur Ausstellung, Japan und Ostasien in der Kunst”, München 1909,” In *MJK* (1909), pp.118-119.

44 *MJK* (1911), p.155.

45 *MJK* (1912), p.89.

이러한 무관심은 1925년 8월 12일 연길에서 에카르트가 세르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베를린에서 활동한 미술사가 빌리암 콘(William Cohn)이 한국을 짧게 여행할 뿐이라고 한탄한다.

많은 학술 여행자가 대부분 한국을 의붓자식 취급하며 겨우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곤 합니다. 빌리암 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인도와 동아시아 미술을 연구하는 1년 가까운 여행 일정 동안 한국에는 단지 3일만 체류했습니다. 1925년 5월 서울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와 상반되게, 쾰멜 같은 독일 학자는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일본에 거주하며 박물관을 방문하고 일본 지성인 및 수집가와 교류했다. 더욱이 그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목판화와 공예품을 널리 알린 미술상 하야시 타다마사(Hayashi Tadamas)의 유언에 따라 유품의 선구매권을 가졌던 보테를 대신해 일본에서 작품을 구매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했다.<sup>46</sup> 독일에서 일본에 대한 담론은 이미 19세기 중반 프랑스 자포니즘(Japonisme)과 그리스 출신 일본 소설가 라프카디오 헤른(Lafcadio Hearn)의 영향 아래 시작되었고, 일본은 1854년 개항 이후 서구인의 학술, 상업 혹은 관광 여행자가 되면서 문학을 비롯해 여러 예술 장르, 여행기, 탐험기, 전문 잡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sup>47</sup> 중국의 경우 1611년 비텔스바흐 가문의 쿤스트캄머 방문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17, 18세기 예수회 교단의 선교 활동을 통해 도자기, 나전칠기 등이 독일로 들어와 중국풍 취향을 형성했고 해상 무역 중심지인 홍콩, 상하이, 마카오 등지에서는 중국의 다양한 물건, 예를 들면 목조각상, 회화 작품 등이 서구인의 요구에 맞게 변형, 제작되어 일종의 문화 상품으로 유럽과 미국에 수출되었다.<sup>48</sup>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독일에서는 교전국이던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면서 박물관도 대중 교육의 관점 아래 이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sup>49</sup> 그러나 한국은 베버가 『고

---

46 Hartmut Walravens, "Otto Kummel. Streiflichter auf Leben und Wirken eines Berliner Museumsdirektors," *Jahrbuch Preußischer Kulturbesitz*, 24 (1987), p.140.

47 Thomas Pekar, "Der Japan-Diskurs um 1900," In *Ostasienrezeption zwischen Klischee und Innovation*, hg. Gebhard, Walter (München: IUDICIUM, 2000), pp.231-236.

48 Müller, 앞의 글(1980), pp.13-17, 23.

49 Gareis, 앞의 책, p.101.

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서문에서 ‘1882년까지 한국에 발을 들여 놓은 외국인은 사형으로 다스려져서 방문이 금지되었다’<sup>50</sup>고 밝힌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늦게 세계무대를 향해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독일인에게 이미 친숙한 동아시아의 다른 두 나라 사이에서 확고한 자리를 획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관심 대상으로도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1928년 5월 28일 덕원에서 에카르트가 세르만에게 보낸 편지는 당대 정치적 상황이 한국을 해외에 소개하는 어려움으로 작동했음을 전달한다.

신부 옴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에는 민족학 혹은 미술사적인 가치를 지닌 믿을 만한 무덤 출토 부장품은 거의 없습니다. 발굴이 발각되면 엄청난 벌을 받은 후 관청에 모든 것을 넘겨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열정적으로 과거 작품을 수집하고 발굴된 작품을 소유하려는 형편입니다. 일본에는 오래 전 작품이 비교적 적으며 최근 큰 지진이 발생해 박물관에 소장된 많은 작품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정부와 연락을 취해 교수님의 박물관을 위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해봤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당시 독일 미술사가나 해외 연구자가 한국에 오래 머무를 필요를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즉 한국에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물적 증거는 오히려 일본에서 용이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26년 베버의 기증품은 20세기 초 뮌헨의 민족학박물관을 찾는 독일 관람객에게 한국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열어주는 매우 드물고 중요한 자료였을 것이다.

#### IV. 맺음말

1868년 뮌헨 호프가르텐 아케이드 북쪽 미술관 건물에서 유럽 이외의 세계 각 지역에서 온 비텔스바흐 가문의 수집품이 개방되었다. 그리고 3대 관장 세르만과 함께

---

50 Norbert Weber,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 (Freiburg: Herdersche Verlag, 1915), p.VII.



막시밀리안 거리의 구 국립박물관 자리로 이전한 민족학박물관은 공간적 협소함과 열악한 전시 환경을 벗어나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며 만개했다. 세르만은 소장품의 중심을 이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뛰어난 조직력, 내각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통해 민족학박물관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민족학박물관 한국 컬렉션의 확장에 있어서는 장크트오틸리엔 선교 베네딕도회 총아빠스 베버의 1926년 기증품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베버의 여행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를 한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서라고 평가한 세르만은 용도가 불분명한 한국 소장품을 베버에게 문의하거나 수집 방향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리적 전문성을 갖춘 학술 연구가 민족학과 박물관 전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세르만에게 베버는 한국 지역의 전문 조력자였던 것이다. 세르만이 베버에게 뮌헨 지리 학회나 인류학, 민족학, 선사학회에서 강연을 요청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박물관장으로서 세르만의 명성은 소장품과 관람객의 폭발적 증가뿐 아니라 당시 호평을 받은 전시 방식에서도 기인한다. 그는 전시장 벽면의 색채 변화, 수직 진열장의 도입, 집중 조명 및 빛과 어둠의 극적 대조 등을 활용했고, 입체경과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끌었다. 베버의 한국 여행 기록이 담긴 입체경 사진은 독일 관람객의 눈앞에서 한국인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베버와 세르만의 교류는 민족학박물관 전시를 한층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세르만이 관장으로 임명된 20세기 초, 유럽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민족학박물관에서 비유럽 지역, 주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물품에서 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이로 인해 미술사가의 시선이 점차 민족학 안으로 들어왔고, 베를린의 박물관 전쟁이 보여주듯 민속품과 미술품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대두했다. 그러나 세르만은 특정 지역 혹은 어느 한 민족의 문화란 민속품과 미술공예품, 미술품의 유기적인 종합이기 때문에 민족학박물관에서 미술품만을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고급문화로 평가되던 아시아와 원시 민족의 산물을 구분하는 태도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데올로기적 편향 없이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민족학박물관의 역할이 대중의 미적 취향을 증진하고 예술가가 문화적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 세르만은 민족학박물관의 전시와 식민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던 당대의 흐름을 비껴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베버가 1925년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 구입하고 기증한 물품

은 민족학박물관의 재개관을 앞둔 셰르만의 이상, 즉 일상용품만이 아니라 독자적인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미술품을 소장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는 베버와 셰르만, 에카르트 간의 서신 교환 외에 청자와 분청사기, 무덤 부장품 등이 중심을 이룬 기증품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민족학박물관의 한국 컬렉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베버의 기증을 다룬 동시대 비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향한 독일인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뒤늦은 문호 개방, 일본 정부의 검열과 통제로 인해 한국 내에 가치 있는 고미술품의 부재, 독일 미술사가나 연구자의 짧은 한국 체류, 제1차 세계대전의 교전국이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독일인의 지식욕 등에 기인한다. 그리고 2021년 여름 오대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을 향한 동경. 화가 빌헬름 하이네의 여행기 Sehnsucht Japan. Reiseerinnerungen des Malers Wilhelm Heine》, 《중국 룽취안의 옥빛 청자와 그 대가들 Seladon im Augenmerk. Jadegleiche Porzellane und ihre Meister:innen in Longquan, China》은 베버의 한국 기증품이 동아시아의 다른 두 나라 사이에서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앞으로 베버와 한국의 문화유산이 어두운 수장고에서 나와 셰르만의 전통 아래 민족학과 미술의 조화로운 결합을 제시하기 바란다.

#### 주제어 Keywords

루치안 셰르만 Lucian Scherman, 민족학박물관 Museum of Ethnology, 장크트오티리엔 St. Ottilien, 노르베르트 베버 Norbert Weber,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Andreas Eckardt, 문화 교류 cultural exchange, 문화횡단성 transculturality

투고일 2021년 9월 12일 | 심사일 2021년 10월 7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1월 3일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독일 상트 오틸리엔수도 원 선교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Mission Museum of St. Ottilien Archabbey*』, 고양: 가을 기획 Goyang: Gaeulplan, 2019.
- 베버, 노르베르트 Weber, Norbert, 김영자 옮김 Kim, Young-ja trans., 『수도사와 금강산 *In den Diamantbergen Koreas*』, 서울: 푸른 숲 Seoul: Prunsoop, 1999.
- 이주현 Lee, Joohyun, 「독일인이 본 근대 한국-독일 민속박물관의 한국유물 수장양상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German Folklore Museums」, 『한국근현대미술사학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22, 2011, pp.301-322.
- Appel, Michaela, *Netzwerk Exotik. 150 Jahre Völkerkundemuseum München*, München: Staatliches Museum für Völkerkunde, 2012.
- Bachhofer, Ludwig, “Zur Neuaufstellung des Museums für Völkerkunde in München,” In *Kunst und Handwerk*, 76:6, 1926, pp.153-159.
- Chinesische und japanische Malerei vom 10. bis 18. Jahrhundert*, München: Deukula, 1930.
- Dreesbach, Anne und Kamp, Michael, “Kolonialismus in München,” In *Kolonialismus hierzulande*, hg. Heyden, Ulrich van der und Zeller, Joachim, Erfurt: Sutton, 2007, pp.68-74.
- Eckardt, Andreas,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Leipzig: Hiersemann, 1929.
- Gareis, Sigrid, *Exotik in München*, München: Anacon, 1990.
- Graf-Pfaff, C., “Zur Ausstellung „Japan und Ostasien in der Kunst“ München 1909,” In *Münchener Jahrbuch der bildenden Kunst*, München: Georg D.W.Callwey, 1909, pp.107-126.
- Hinz, Thomas, “Das Dilemma mit der Exotik. Neuigkeiten aus den Völkerkundemuseen?,” *Mitteilungen zur Kulturkunde*, 50, 2004, pp.275-288.
- Japan und Ostasien in der Kunst*, München: Verein Ausstellungs-Park, 1909.
- Keckskési, Maria, “Lucian Scherman und die Missionsbenediktiner von St. Ottilien,” *Münchener Beiträge zur Völkerkunde*, 6, 2000, pp.235-241.
- Lee, YouJae, *Koloniale Zivilgemeinschaft*, Frankfurt am Main: Campus, 2017.
- Müller, Claudius C., “400 Jahre Sammeln und Reisen der Wittelsbacher,” In *Wittelsbach und Bayern*, hg. Müller, Claudius C., München: Hirmer, 1980, pp.11-33.
- Müller, Claudius, “Völkerkunde und Kunst in München,” In *Weiter als Horizont*, hg. Müller, Claudius, München: Hirmer, 2008, pp.7-16.
- Müller, Claudius, “Lucian Scherman und der *Blaue Reiter*,” In *Der große Widerspruch*, hg. Klingsöhr-Leroy, Cathrin, Berlin: Deutscher Kunstverlag, 2009, pp.102-120.
- Münchener Jahrbuch der bildenden Kunst*, München: Georg D.W.Callwey, 1909, 1911, 1912.
- Pekar, Thomas, “Der Japan-Diskurs um 1900,” In *Ostasienrezeption zwischen Klischee und*

- Innovation*, hg. Gebhard, Walter, München: IUDICIUM, 2000, pp.227-254.
- Saalmann, Timo, "Die Neuordnung des Berliner Museums für Völkerkunde in den 1920er Jahren," *Mitteilungen zur Kulturkunde*, 62, 2016, pp.177-201.
- Scherman, Lucian, *Führer durch das Museum für Völkerkunde*, München: R.Oldenbourg, 1922.
- Schmidt, Werner, "Das Museum für Völkerkunde in München," *Die Form*, 5, 1930, pp.387-399.
- Smolka, Wolfgang J., *Völkerkunde in München*, Berlin: Duncker & Humblot, 1994.
- Smolka, Wolfgang J., "Lucian Scherman-Stationen seines Wirkens in München," *Münchner Beiträge zur Völkerkunde*, 6, 2000, pp.9-35.
- Walravens, Hartmut, "Otto Kummel. Streiflichter auf Leben und Wirken eines Berliner Museumsdirektors," *Jahrbuch Preußischer Kulturbesitz*, 24, 1987, pp.137-149.
- Weber, Norbert,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 Freiburg: Herdersche Verlag, 1915.
- Weigelt, Uta, *Lucian Scherman(1864-1946) und das Münchner Museum für Völkerkunde*, München: Staatliches Museum für Völkerkunde, 2003.

## Between Ethnographica and Artworks

### Museum Five Continents and Norbert Weber's Donation of 1926

Lee, Hwajin

Museum Five Continents in Munich originates from the royal ethnographic collection of non-European World established by the Wittelsbachs, the ruling house of Bavaria. The appointment of the 3rd Director Lucian Scherman in 1907 marked a turning point for the Museum of Ethnology, which is named Museum Five Continents since 2014. This caused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ctions, visitors and acclaimed exhibitions. In the expansion of its Korean collection, a gift in the spring of 1926 made by Norbert Weber, archabbot of the Missionary Benedictines in St. Ottilien, who visited Korea a second time and purchased Korean artifacts in 1925, played such a crucial role. Weber became a special adviser with his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Korean culture for Scherman, who evaluated his travel book, *Im Lande der Morgenstille* (in the Land of Morning Calm) published the first edition in 1915,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ndard works for Korea. The stereoscope pictures, which were founded at the archive of Museum Five Continents in the Summer of 2021, based on Weber's Korean photos. They might have vividly conveyed the Korean people in ordinary clothing, everyday life, and religion, before the eyes of German visitors to the Munich Museum using a modern visual technique. The correspondence between Scherman and Weber suggests that their relationship did not remain as a personal acquaintance but also enriched the exhibitions of the Munich Ethnological Museum.

Furthermore,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Scherman started in his role as museum director, avant-garde artists such as *Blauer Reiter* (Blue Rider) began to find their artistic inspiration at the ethnological museums. As art historian Wilhelm von Bode's Plan and the *Berliner Museumskrieg* (Berlin Museum War) illustrated, there was a tendency to separate the artworks from the ethnographic collections. However, Scherman, who understood one specific culture as an organic synthesis of folklore articles, arts and crafts and artworks in that region, stayed away from the rearrangement of museum exhibits in Berlin. In addition, he insisted that the role of the Museum of Ethnology in Munich was to promote the aesthetic taste of the public and guide the artists and craftsmen. Consequently, by

resisting to divide high culture and the primitives Scherman deviated from the colonial ideology permeated in many ethnological museums in Germany. In this respect, the ethnographica Weber purchased his second trip to Korea and donated to the Museum, were primarily ceramics, such as celadon, responses Scherman's ideal, collecting not only daily necessities, also the unique artworks which are able to show Korean culture in the reopening of the Museum of Ethnology in the Maximilian street. Notwithstanding, the lack of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Korean collections or then contemporary criticism of Weber's donation apparently demonstrates the German's indifferences towards Korea. Such a phenomenon was caused by the late opening of Korea to foreign countries, in comparison with other eastern Asian neighbours, the absence of valuable antique art under the censorship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Seoul, and the short stay of German art historians and researchers in Korea. It is hoped that Weber's collection, which is still silent in the dark storage in Museum Five Continents, discovers a way out as it presents a harmonious combination of ethnology and art under Scherman's tradition.